

【우리 시의 향기 3】

머뭇거리림과 망설임이 갖는 소월 시의 아름다움, 가는 길

김현자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1. 삶의 모순성과 사랑의 양면성

삶은 해명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충동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은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고, 슬픔과 기쁨, 만남과 헤어짐, 사랑과 증오, 삶과 죽음 등의 이원적이고 대립적으로 보이는 가치들은 뿌리가 한데 엉겨 있으면서도 다른 개체로 자라나는 상사목처럼 뒤엉켜서 우리를 자주 그 경계선에서 머뭇거리게 하며 갈등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율배반성과 모순성이 삶의 진실 한편을 이룬다고 할 때 시인의 통찰력은 그것을 포용해 내어 시의 진실로 구축해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발견이자 경이이며 창조행위이다. 과학자가 사물의 논리와 법칙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철학자가 관념으로 세계를 인식한다면 시인은 사물의 논리와 관념에 독특한 정서적 융화를 꾀한다. 이는 모든 이질적인 것, 대립되는 것들을 시인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 재구성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과 삶, 멈춤과 방향, 만남과 헤어짐 사이에서 늘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서정적 자아는 김소월의 시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실로 소월의 시는 삶의 모순성, 사랑의 양면성 속에서의 갈등이 섬세하게 आरोसे겨진 심리적 풍경이라 할 수 있다.

가는 길

김소월

그렵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西山에는 해 진다고

지저킵니다.

얹 江물, 뒷 江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롭디다려

시 〈가는 길〉의 형식을 살펴보자. 이 시는 형태적으로 4연 12행으로 7·5조(3음보)의 전통적 운율을 채택하면서 그 변주 또한 보여 주고 있다. 싹표와 절제된 종결어미, 주체의 생략, 말 줄임표 등의 과감한 생략법은 시 해석의 다양성을 넓혀 주며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시의 음감을 높여준다. 1·2연이 생략과 압축, 뒤이어 올 말을 삼키는 구문상의 열려짐으로 많은 여운을 남기면서 멈춤과 방향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내면 정서를 보여 준다면, 3·4연은 '-버니다', '디다려' 등의 객관화된 어법을 사용해서 자연현상의 서술에 주력하면서 '까마귀의 울음', '물의 흐름'에 시인의 감정을 투영시키고 있다. 좀더 세분화시켜 음보 단위로 살펴보면 전반부 1·2음보와 후반부 3음보 마디가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화자의 감정은 '하니 그리워', '다시 더 한 번'이라는 후반부 마디에 더욱 기울어져서 둘 사이에 긴장감과 대립이 발생한다.

이러한 대립은 김소월 시를 해독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시적 장치이기도 하다. 이 시는 표면적 의미에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림다고 말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이의 곁에 머무를 것인가, 이렇듯 정착과 방향 사이에서 갈등하고 머뭇거리리는 동안에도 자연의 객관적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간다. 결국 시의 Theme는 그리움이 라는 개인의 감정적 요소에서 삶의 시간성이라는 좀더 넓은 의미 맥락으로 확대되어 간다.

이 시의 의미 구조는 1연에서 '말을 할까'하는 행동에의 결의가 2연에서 '그냥 갈까'라는 행동을 막는 멈춤에 의해 대립된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행동과 멈춤 사이의, 팽팽한 긴장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은 3연의 까마귀와 서산으로 지는 해에 의한 시간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결단을 재촉당하고 있다. 그것은 다시 4연의 강물의 흐름에 의하여 의미가 확장된다. 연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 시 전체의 움직임은 화자의 행동과 행동의 멈춤 사이에서의 망설임이다. 팽팽히 이항 대립을 이루는 두 운동 구조 사이에서의 망설임은 김소월의 내면적 심리의 갈등을 표현하는 운동의 특징이자 그 반대모순이 갖는 독특한 시적 아름다움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리움의 서정에 빠져 있는 화자와 실제 인식의 세계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김소월의 시 전체를 통해 일관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시에서는 물처럼 흐르고자 하는 의지와 멈춤의 충돌에서 있는 화자의 심리적 풍경을 보여 주기 위하여 대응적인 구조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 ① 말을 할까/ 그냥 갈까
- ② 山까마귀/ 들까마귀
- ③ 앞 江물/ 뒷 江물
- ④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①은 주체자의 행위의 이항 대립, ②는 대상이 되는 까마귀가 있는 장소의 이항 대립, ③은 강물의 위치와 이항 대립으로, 그리고 ④는 강물의 흐름이 '오다/가다'라는 서술어의 이항 대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동시에 그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반대의 이미지에 의해 긴장을 형성한다.

특히 이 시에서 중심이 되는 움직임은 ‘가다’라는 서술어에 집중되고 있다.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포함하여 ‘그냥 갈까’, ‘어서 따라가자고’의 직접적인 서술이나 산과 들에서 날아 다니는 까마귀의 움직임, 차차 서쪽을 향하여 가는 해의 움직임은 ‘가다’의 상황을 설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 강물과 뒷 강물이 어디로인가 흘러감으로써 ‘가다’라는 서술어는 이 시 전체를 꿰뚫는 공통분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가는 길에 서 있는 화자를 중심으로 이 시에 등장하는 길과 까마귀와 지는 해와 강물 등은 흐름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 시 <가는 길>의 구조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연(1~3행)	2연(4~6행)	3연(7~9행)	4연(10~13행)
風景	화자의 내면 풍경 1	화자의 내면 풍경 2	산, 들	江 물
意識	그리움	잊음	시간의 警告	행동의 권유
行爲	행동	머뭇거림	(해가) 짐	(강물의 흐름)

2. 시인 의식의 지향점, 흐르는 물 이미지

김소월 시의 상상력 가운데 흐름을 끌어 오는 물의 요소는 핵심을 이루는 이미지로서, 물과 관련된 냇물, 강물, 바다, 호수, 안개, 눈(雪)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강물, 흐르는 물, 따라,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등 물에 관련되는 낱말 뿐만 아니라, 그림다, 말을 할까, 그리워, 길, 그래도, 갈까, 들 등의 유음, 비음, 모음으로 구성된 단어들도 압도적이어서 이 시에서 물이 흘러가는 부드러운 음향감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기여하

고 있다.

바슬라르는 물의 속성 중 유동성을 그 첫번째로 들고 있는데 물은 '가는 길'의 풍경 중에서 이 시의 근간이 되는 요소를 이루고 있다. 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3개의 음소 모두 물[m·u·l]의 유성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흐르는 느낌인 데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이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물은 이 시의 흐르는 느낌을 강조하는 데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의식의 지향성이 가는 길에 집중되어 있을 때, 흐름의 그 원초적 직관에 의해 결국 그의 창조적 체험의 지향과 구조의 일관된 맥락은 강물의 이미지, 즉 흐름의 연속적 상상력에 의해 시적 통일성을 갖고서 탄생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소월 그 자신을 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이며 직관적인 심상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의 유동성은 다음 단계에서 3연의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西山에는 해 진다고/ 지저 켜니다'의 시간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쪽도 저쪽도 가 보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다가 흘러가 버리는 수많은 시간들, 일몰에 우짖는 까마귀는 우리에게 시간의 유한함을 경고한다. 즉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다.

서산에 지는 해는 흐르는 물과 잘 일치되어 전형적인 시간성을 표상하고 있다. 해가 지는 일몰의 시각, 그것은 낮과 밤의 중간에 있는 시간이며, 죽음과 삶, 노동과 휴식이 엇갈리는 경계선의 시간이다. 그것은 위안과 동시에 깊은 공백의 단애감을 제시한다. 시간의 전진을 표상하여 주는 부시는 '다시', '어서', '연달아' 등으로 물의 흐름을 한결같이 시간 내지 세월의 개념으로 표상하고 있다. 사람은 두 번 다시 똑같은 강물 속에 서 있을 수는 없다

고 한다. 물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도 그러하다. 어제와 오늘, 사람들은 똑같은 현실 속에서 결코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의 물의 흐름은 시간 및 세월에 대한 개념의 한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연의 마지막 행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는 이 시의 전 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종결어미 ‘흐릅디다려’의 ‘려’는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화자의 발언된 내용과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객관화된 傳言의 태도로서, 여태껏 강물의 영상과 겹쳐지던 자신을 강물이라는 대상과 분리시키고 있다. ‘흐릅디다려’는 남에게 판단을 전가시키는 듯한 종지어법으로 그의 시적 세계관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결국 물과 같이 흐르지 못하고, 즉 앞으로 나아가거나 그리움에 정착하지도 못하며, 그림다고 말을 하는 행위와 그냥 가 버림의 대조적 행위, 즉 흐름과 멈춤의 이항 대립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다. 흐름과 멈춤의 연속으로 끝나 버리는 끝 연의 맺음 방식은 가는 곳이나 의지의 지향성이 애매함을 나타내고 있다. ‘하니’, ‘그래도’, ‘다시’, ‘어서’ 등의 부사는 그러한 두 행위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고뇌하는 화자의 갈등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물의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때 그것은 7행의 까마귀, 8행의 지는 해와 함께 불길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상정할 수 있다.

“물은 항상 흐르며 물은 항상 떨어지며, 그리고 항상 수평적인 죽음으로 끝난다”는 바슐라르의 말은 흐름과 멈춤, 죽음과 삶을 동시에 바라보는 이 시의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흘러가 버려 붙잡을 수 없는 시간과 삶, 아울러 인간의 의지로서는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의식이 암시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흐르는 물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첫

제 연의 '말을 할까'와 둘째 연의 '그냥 같까'의 대립은 공간적 이동감과 함께 극적인 대조의 효과를 보여 준다. 가고자 하는 의지와 머무름, 즉 흐름과 멈춤 사이의 상충은 '산의 까마귀/ 들에 까마귀', '압 강물/ 뒷 강물'의 대립된 이미지로 동시에 뒷받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두 행위 사이의 머뭇거림인 것이다. 그 망설임 사이에서 강물은 같이 흐르자고 권유하고 화자는 다시 한 번 더 멈추는데, 까마귀들은 시간이 없음을 재촉한다.

3. 양면성 사이의 망설임이 갖는 독특한 시적 아름다움

생의 머뭇거림, 살아가는 도중에 무수하게 와 닿는 선택의 질문, 즉 가고자 하는 마음과 머물고자 하는 마음, 방향과 정착에 대한 두 명제는 사람을 영원히 머뭇거리게 하는 두 과제인바, 그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든 진실이든 간에 행동 이전의 머뭇거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에 나타난 김소월의 전체로서 파악된 대상의 이미지는 흐름과 멈춤 사이의 머뭇거림, 해가 지려는 순간의 애매한 시간의식, 강물과 지는 해의 우주 공간에서의 변화와 불변, 순간과 영원의 동시적 존재로서의 흐름에 대한 지향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 시에 나타난 의식의 틀은 김소월 시의 전체 구조의 연쇄성을 이루는 중심점이 된다.